

2022년 03월 2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3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70(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유다서 1장 1~10절(신약p.397)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인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 말씀선포 /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

공동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 의해 씌어진 서신입니다. 유다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 체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성도들을 불의와 이단의 세력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본 서신을 기록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가 아닌 외형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체 육신을 가지셨다면 이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경과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강한 논쟁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는 주의 식탁을 더럽히고 굳건하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케 하는 거짓 교사들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산 교회가 어떠한 거짓 가르침에도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진리 위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히 경고하며 권면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여 자신들의 뜻을 따라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로,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권면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를 향한 유다의 권면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1.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행실을 조심하라.

- 본문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고 했습니다. 유다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 거룩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경건하지 못한 행실로 이끄는 침입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로 방종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삶을 음란과 불신앙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그들은 육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천사들까지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4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역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히브리어 “카도쉬”로서 이 단어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 “카다쉬”의 파생형인 단어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러진 자들은 옳고 진실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신약에서의 거룩함은 “하기오스”로서 이는 “두려운 것”에서 유래된 단어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삼가 삶의 모습을 조심하고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순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는 성도들을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은혜를 빙자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죄악을 이기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에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가 없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안일한 확신을 멀리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2.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을 심판을 기억하라.

- 본문 8~10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셨던 사례들을 들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죄악과 속박에 빠져 살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수많은 특권을 부여받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를 이탈하여 타락한 존재가 됨으로써 영원한 심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7장 8-9절에서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고 하였고, 호세아 12장 1~2절에서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깨어 근신하며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고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세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다르기에 머뭇거리거나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없는지 자세히 살피고 경계해야 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신앙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의 침입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불경건과 불의한 삶으로 이끌며 감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된 자들에게서 믿음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57(통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폐 회 / 주기도문